

고3 이어 중3 교실도 한달간 시간 때우기

잠자고 영화보고 학원숙제 등 파행 '공교육 올스톱'

학부모 "놀릴 수 없어 학원으로" ...사교육 등떠미는 격

#1. 15일 오전 11시 광주 A중학교 3학년2반 교실. 36명의 학생 중 2명은 결석했고, 34명이 자습 중이다. 수업을 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성화에 자습을 하고 있다. 10분이 지나자 전체 34명 중 20명이 앞드려 잔다. 3~4명은 책을 읽고, 또 다른 3~4명은 게임에 열중이다. 나머지 6~7명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2. 지난달 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광주 B중학교 3학년 C군. 이미 특성화고에 합격한 C군은 기말고사 부담이 없다. C군은 장난 삼아 답안지인 OMR 카드의 모든 문항을 수성펜으로 시커멓게 칠했다.

중3 교실의 풍경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교실에 이어 중3 교실도 파행을 겪고 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학습 분위기가 깨져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업 파행이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 진도를 마친데다 기말고사까지 끝나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교실이 어수선하다"며 "수업을 못할 바엔 차라리 학원숙제라도 할 수 있도록 자습을 시키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현재 중3 교실은 수업 대신 자습을 하거나 영화감상,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습 시간에는 학생 절반 이상이 자는 실정이다.

중3 한 학생은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수업이 되지 않고 자습을 하고 있다"며 "자습시간에는 대부분 잠을 잔다. 오후에 학원에 가려면 차라리 자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3 교실 파행은 고입전형 일정과 맞물려 있다. 고입전형에 따라 기말고사 기간이 예년보다 2주정도 앞당겨지면서 수업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기말고사가 끝나자 학생들은 수업의 의미를 찾지 못한 탓이다. 반면, 중학교 겨울방학 시작은 2주 가량 늦어졌다.

이에 따라 중3 교실의 파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선행학습 금지도 중3 교실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만 해도 중3 교실은 겨울방학 시작 전까

지 학교별로 기초 고교 과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고교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겨울방학 전까지 한 달 간 놀릴 수 없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되레 아이들을 사설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3학년 부장은 "중3 겨울이 고교 3년 생활과 대학입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고교에 진학하면 교과 분량이 크게 늘어나 진도를 따라잡기도 쉽지 않다. 미리 해둬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수업 파행이 사실이라면 실태조사를 거쳐 고교 전형 일정을 늦추는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무공단 간부가 소년범 지원금 '꿀꺽' 전 순천지소장 입건

순천경찰청은 보호감호 중인 소년범들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전 순천지소장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보호감호 중인 소년범들에게 지원되는 법무부의 '보호자 지원금'을 가로챈 목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여간 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위탁 감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복지공단 외 장소에 머무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들의 주소지만 자신이 임대한 월룸으로 옮겨놓고 3000만 원 상당의 생계 및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씨는 지난 10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온도·습도·촉각 느끼는 인공피부 서울대연구진 개발

서울대 연구진이 사람 피부처럼 부드럽고 신축성 있으며 온도와 습도,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인공피부를 개발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화학생명공학부 김대형 교수가 실리콘 고무 속에 신축성 있는 초소형 센서들을 배열한 스마트 인공피부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인공피부는 초박막 폴리이미드(PI) 박막과 실리콘 단결정 나노리본(SiNR)으로 만든 온도·습도·압력·변형 센서들과 인공피부를 가열하는 금(Au) 나노리본 발열체를 투명한 실리콘 고무 속에 배치한 구조다.

이에 따라 인공피부에 닿는 물체의 온도·습도와 함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과 늘어나는 정도도 감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담배 왜 더 안팔아" 손님이 행패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 허용 수량을 두고 종업원과 실랑이하던 30대 남성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경찰서행.

○...15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날 새벽 2시에 광주시 광산구 A편의점에서 종업원 이모(46)씨의 얼굴을 향해 '핫바'를 집어던지며 마구잡이로 욕설을 내뱉는 등 30분간 가랑 소란을 피운 혐의.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힌 박씨는 경찰에서 "불현듯 내년부터 담배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이 스쳐, 두갑 산 뒤 연이어 몇 갑 더 달라고 했는데 종업원이 다짜고짜 '담배 사재기는 단속 대상'이라고 맞서자 술기운 탓에 순간 화가 났다"며 때늦은 후회.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장흥 50대 부부 농약 음독 숨져

50대 부부가 부부 싸움 중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5일 장흥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장흥군 장흥읍 운모(59)씨 집에서 윤씨와 부인 김모(5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전 6시40분께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제조제가 담긴 병과 물컵 2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물컵에는 제조제가 발견됐다.

신고를 한 주민은 경찰에서 "윤씨 부인이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해 가보니 윤씨는 심하게 구토를 하고 있었다"면서 "윤씨 부인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장기 제조제를 마셨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상 등 타살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부부싸움 중 제조제를 마신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유족 뜻을 감안,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부실 관제' 진도VTS 현장검증

15일 오후 '부실 관제'로 세월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영)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 '5·18기념재단 연구소' 만든다 잊혀져가는 진실 명확히 밝히기로

잊혀져가는 5·18 민중항쟁의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5·18 기념재단 산하 (가칭)5·18 기념재단 연구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15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10월 중순께 5·18 기념재단 산하 연구소 설립방안을 놓고 회의를 한 뒤 (가칭)5·18 기념재단 연구소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5·18 기념재단은 내년 안으로 전문연구원 1명 이

상의 인력을 둔 5·18 기념재단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5·18 기념재단 연구소가 설립되면 5·18의 오해와 진실, 역사왜곡 및 편향, 5·18 관련자료 수집 등 관련 업무를 맡아할 것이라는 게 5·18 기념재단 측의 설명이다.

5·18의 주역이자 산증인들이 세월의 무게를 넘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점을 감안, 5·18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남은 생존자가 누구인지와 압매장 장소, 도청광장 마지막 방송 주인공 등 논란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오해와 진실을 가려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내년이면 5·18이 35주년을 맞게 된다. 5·18 항쟁 당시 주요 사건을 집중 연구해 5·18을 재정리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5·18 역사왜곡 및 편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이날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안)을 상정, 이사회 추천을 받은 A씨를 5·18 기념재단 제12대 이사장으로 결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사장직을 수락할 경우 임기는 내년 1월 25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A씨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오는 29일 재의결하겠다는 게 이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약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림)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